

# 책의 해 열기로 지퍼지는 新기업문화

## 기업체 독서운동 폭넓게 확산... '독서휴가제' 실시하는 곳도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란 슬로건 아래 책을 읽고 아껴 우리 출판문화의 변혁을 꾀하는 ‘책의 해’를 맞아 新독서문화가 각계각층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 책의 해 1/4분기를 마감하는 분위기를 흥겹게 하고 있다.

특히 대선과 새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경제구조 재편과 최근 몇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위협수위의 불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내외적인 위기상황을 극복, 21세기를 대비한 기업문화를 개척하고 책의 해를 통해 기업내 책읽는 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열띤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많은 수의 기업들이 전개하고 있는 독서운동은, 이상의 대의명분과 함께 사원들의 전문지식과 교양을 증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기업이윤’을 염두에 둔 사원관리방편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독서클럽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운동은 각종 신간정보지나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책을 선정하고 근무시작 전과 점심시간, 그리고 업무종료 후 매일 일정한 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임직원 모두가 시간을 정해 독서를 생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 ‘사내 독서문화대학’ 설치한 회사도

회사측에서는 이같은 운동을 펼치면서 우수 부서나 사원들에게는 포상휴가 등 혜택을 주어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며, 월례 강좌시간을 마련 ‘저자와의 만남’ 등 부대행사를 통한 관심모으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업체인 동양기전의 경우, 사내 독서문화대학을 설치해 기업체 독서운동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 8학기 동안 1백48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91년 시작된 이 독서문화대학에서는 전체 4백여명의 사원 가운데 65명이 등록, 4년간 1백권의 독서와 영화 미술전시회 관람 등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월2회에 걸쳐 3시간씩 저자의 강의와 관련분야 교수진의 특강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독서휴가제’란 독특한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도 있다. 음향기기 전문업체인 인켈이 화제의 기업

으로, 여름휴가와 별도로 일주일간의 독서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원을 제출하면 독서휴가를 주고 독후감을 받는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교육후생부에서 선정한 경영과 정보에 관한 전문서적 1백여권 가운데 두권을 고르면 되는데, 이제까지 독서휴가를 지낸 20여명의 간부들의 반응이 좋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딱딱한 업무로 인한 사원들간의 대화부족을 책이란 공통적인 화제로 풀어주고 업무능력 배가는 물론, 교양을 늘려주는 사내 독서운동과 각종 행사를 조사한 책의 해 조직위원회의 자료에도 그 실태와 현황이 잘 드러난다. 먼저 대우전자부품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독서클럽을 전개하면서 서울 사무소를 비롯해 안성 안양 등 지방사무소에서도 사원들의 책임기운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중석도 주임급 이상의 직원들에게만 실시하던 독서운동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생산직 사원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두산그룹은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 동포들에게 책보내기 사업’을, 에스케이어는 해외동포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91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로스엔젤레스와 뉴욕, 상파울로 등 일부 미주노선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외에 일반 단행본을 6, 70권씩 비치한 ‘기내도서관’을 설치, 책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 이 기내도서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세규씨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소설과 만화 동화책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영문판과 일어판도 갖춰놓았다”고 장서현황을 설명하고, “이용독자는 하루평균 30여명 정도로 40대 남성층이 활용하는 예가 제일 많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시간 정도의 항공거리에 맞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도착전까지 미처 책을 다 읽지 못한 승객들이 무척 아쉬워한다”고 전한다. 대한항공측은 기내도서관에 대한 승객들의 호응이 큰데다 책의 해를 기념하는 뜻에서 조만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주노선뿐 아니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이 기내도서관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았다. 기내도서관은 외국의 어느 항공사도 시행한 전례가 없어 대한항공이 ‘새 항로’를 개척한 격이 되고 있다.

기내도서관과 함께 이색적인 독서운동을 전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원들이 독서를 즐기고 있는 대우중공업의 도서관.

개하고 있는 곳이 제주 신라호텔. 이 호텔은 책의 해를 맞아 호텔 3층에 15평 규모의 고객용도서관을 마련, 투숙객을 대상으로 무료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는 소설류 1백80권을 비롯해 비소설 50권 어린이용 책 2백권 등 모두 4백30여권을 비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호텔측은 앞으로 미술전과 음악회 등 기존의 문화행사와 함께 이 도서관운영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또 상업은행은, 중·고·대학에 진학하는 직원자녀들과 성년을 맞는 행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사업을 4년동안 지속해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은행장이 직접 서명한 책을 진학자녀와 직원들에게 줌으로써 기업의 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측은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출판단체와 종로서적 등 대형서점의 추천을 받은 책 가운데서 양서를 골라 선물하고 있는데, 정철진씨는 “매년 가을 독후감을 공모해 실질적인 독서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 고객접촉 많은 은행업계 참여 활발

의류업체인 브렌다라는 “책읽는 젊은이가 미래를 바꿉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잠룡 전 방곡시장의 자서전 「잠룡 스토리무양」 「어린 왕자」 등 4권의 책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여 사은품 문화에 책을 포함시키는 의미 있는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기업들의 독서운동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독서클럽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이

도서관 운영. 이미 4년전부터 그룹사옥 1층로비에 50여평 규모의 도서관을 마련, 운영하고 있는 금호그룹은 매년 5월 도서관개관 기념일에 맞춰 1년동안의 최다도서대출자와 최다도서기증자를 선정해 가전제품을 시상하고 있는데, 사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이 도서관의 강성희씨는 “하루 평균 8, 90권의 책이 대출되는데 주말이나 명절 전에는 최고 2백권 가량의 책이 대출된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꼽아보면, 부산 파이프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매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임원과 대리급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독서시간을 정해 지속적인 독서를 하고 있으며, 곧 전사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역시 매일 출근 직후와 퇴근후 1시간30분 동안 ‘자기개발의 길, 고객만족의 길’이란 표어를 내걸고 ‘양서 1만쪽 읽기운동’을 펴고 있는데, 회사측은 임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전문서적 1천권을 구입해 읽힌 뒤 독서발표회를 매월 한차례씩 열고 있다. 운전기사실에 장서를 구비하는 아이디어를 보인 춘천 컨트리클럽과 사내도서관을 개최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도 책읽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체들에 속한다.

고객들과의 접촉이 잦은 업무의 성격상 고객들을 위한 도서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업계가 바로 은행업계.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도 지난달 6일 알뜰도서관 시장을 개최한 바 있고, 고객 직원문고 설치,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책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은행은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17일부터 오는 4월21일까지 '세계의 아름다운 책전시회'를 각 영업점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청담동 지점에 위치한 전시실 '하나사랑'에서 시작해 이 은행의 각 영업점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라이프씨허 국제도서예술상, 볼로냐 국제아동도서 그래픽상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북디자인상의 수상작품 2백여권이 전시되고 있다. 강남역 지점의 정원재대리는 "은행객장을 통해 아름다운 책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자평하고, "바쁜 일과에 쫓기는 행원들도 오고가며 곁눈질이라도 장정이 뛰어난 각국의 책을 '훑쳐보는' 재미가 있다"고 전한다. 또 이번 전시회를 보기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 성공적 기획이라고 덧붙인다.

은행과 더불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백화점의 책의 해 관련 독서운동도 못지않게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레이스백화점은 지난 2월13일부터 3월7일까지 양서 염가판매전을 개최한 바 있고, 뉴코아백화점은 과천지점에서 제1회 과천 뉴코아문고 독후감대회를 실시했으며, 미도파백화점 동방점에서는 지난달 6일 벌인 알뜰도서관교환시장이 성황리에 끝나 금년말까지 매일 첫째 토요일마다 개최기로 결정했다.

**책의 해를 맞아 많은 기업체들이  
사원들의 호응 속에 사내의 독서운동을  
벌여 새 기업문화를 가꾸고 있다.  
독서클럽과 도서실 운영, 독후감상문  
대회, 그리고 각종 포상제도 등의  
형식을 띠고 있는 독서운동은,  
직원들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전문지식·교양을 길러주는  
사원관리 프로그램으로의 정착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백화점업계의 이같은 도서판매 위주의 행사는 출판사들에게는 재고도서순환과 고객들에게는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구간도서를 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환영받고 있으나, 일부 백화점에서의 도서무료증정행사는 지탄을 받기도 해 아쉬움을 남겼다. 백화점에서의 베틀시장 행사는 기업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실속과 직장인들의 손에 의해 성행하고 있는 기업체의 베틀시장에서도 회화교재나 다 읽은 베스트셀러 등 도서가 상당량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책읽기 운동과 관련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역시 독서클럽. 회사에서 책의 해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책읽히기'가 다소 강제성이 있어 '행복한 책읽기'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면, 대개의 독서클럽은 자발적인 참여로 꾸려지고 있어 그같은 우려가 없다.

중부관리공단의 여직원들이 지난 88년 조직한 친목단체인 '하나회'는 한달에 한권씩 양서를 골라 읽는 독서클럽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게시판을 이용해 '이달의 애송시'를 게시하고, 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월간 구미공단」지와 협조해 책읽기 운동을 벌여 왔는데, 올 책의 해를 맞아 이 모임은 매월 5권의 권장도서를 선정해 독후감을 접수, 게재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글방회'도 같은 해 구성된 독서모임으로 71명의 회원이 1천2백권가량의 도서를 장서하고 있으며, 매달 15일경 약 30권의 책을 늘 구입해 회의실에 비치한 후 2주일 정도의 대출기간을 뒤 사원들이 읽을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2백권정도가 대출돼 있는 상태라고.

#### 지속적 전개위한 투자와 지원 바람직

이 모임의 회원인 박경숙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받기 마련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독서는, 특히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전한 뒤, 여직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지만, 간부직 사원들

도 부인과 가족들의 독서를 위해 책을 대출해 간다"고 밝힌다.

대우전자 광주공장의 하도문화회도 정기모임과 백일장 참가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지만, 사원들간의 친목모임 형태를 띠고 있는 대부분의 독서씨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지원보다는 회원들의 '주머니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문화의 해 지정사업에 의해 93년이 책의 해로 선정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기업내의 책읽기 붐은 올 한해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런 독서분위기가 1년동안 그저 행사위주의 형식감추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최태원 기자

## 기업과 조직, 디자이너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야별 사회심리 시리즈

### 사회심리시리즈 1 군중심리

구스타브르봉 지음 / 전남석 옮김  
신국판 / 232쪽 / 값 5,000원

역사를 창조한 것은 군중이었다. 그러나 군중은 지적 행동보다는 감정적 행동에 휘말리게 된다. 「군중심리」는 바로 무엇이 군중으로 하여금 열광케 하고 분노케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군중의 특성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다.

### 사회심리시리즈 5 작업심리

P.M. 피츠 M.I. 포스너 지음 / 이연숙 옮김  
신국판 / 223쪽 / 값 4,800원

인간의 노동기능이 습득되는 원리, 그 작업기능의 한계와 능력 향상의 방법을 실험심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 복잡한작업을 분석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인간의 능력을 예측하고 능력 향상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노동심리학.

### 사회심리시리즈 2 색채심리

파버 비렌 지음 / 김화중 옮김  
신국판 / 352쪽 / 값 7,000원

색채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파버 비렌이 고안한 안전색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영공장에 채택되어 사고율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준 바 있다. 신비로운 색채심리를 밝혀놓은 세계적인 명저이다.

### 사회심리시리즈 6 광고심리

오오이시 준이치 지음 / 박승호 옮김  
신국판 / 221쪽 / 값 5,000원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상품의 판매량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광고는 소비자의 심리를 유도해야 한다. 「광고심리」에서는 효과적인 광고비 투입과 광고의 윤리화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 사회심리시리즈 3 유행심리

마르크 알랭 데랑 지음 / 이연숙 옮김  
신국판 / 232쪽 / 값 6,000원

유행은 어떤 집단의 분비물이며 동시에 그 집단의 이상·모순·가치·무의식의 신경증적 구조를 표현한다. 오늘날 산업화 사회에서의 유행의 사회적 기능과 그 메커니즘을 역사적·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힌 명저이다.

### 근간 사회심리시리즈 7 소비심리

호시노기 쓰미지 지음 / 이연숙 옮김

기호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소비심리 연구의 결정판. 소비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을 받아 구매하고 소비하며 즐기게 되는가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놓은 책으로 일본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수준 높은 내용.

### 사회심리시리즈 4 조형심리

오미켄타르 지음 / 권민 옮김  
신국판 / 362쪽 / 값 8,000원

미술이 지니고 있는 제반문제를 실험, 조사하고 검증과 통계처리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편성 있는 결론을 유추해 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실험과 통계를 통해 모든 조형예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제시해 준다.

